

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업계관계자, 전문가 한자리 토론

## 환경정책 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전시회 대성황 이뤘

국내 환경 현주소 한눈에 파악...대표 행사 자리 매김



**환**경부 담당과장 및 관계자,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 업계 관계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환경정책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대성황을 이뤘다.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 까지 환경분야 민·관·학·산·연이 함께하는 '환경부 정책설명회 및 신기술 발표·전시회'를 제주 라마다프라

자호텔에서 개최했다.

전국 산업현장 5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는 환경공무원·학계·환경산업체·배출업소 대표이사·환경기술인 등이 모두 모여 '국내 환경의 현주소'를 한눈에 확인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정책 설명회'는 당초 개최지인 제주 지방의 날씨



▲ 개회사를 하고 있는 박천상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 축사를 하고 있는 문정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격려사를 하고 있는 제종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환영사를 하고 있는 오문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장

가 흐릴 것으로 예상돼 주최 측의 걱정이 상당했지만, 환경담당공무원과 환경전문가 및 전국 환경기술인 등 환경 분야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행사의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매년 환경분야 관계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환경정책의 산실인 환경부 실·국장을 비롯해 실무과장들이 직접 참석해 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약 600여명의 환경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 기술인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더 알찬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의미있는 행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행사장 밖에는 (주)해피크린(대표이사 이광희) 등 우수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제품 및 회사소개를 위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행사참석자들이 휴식을 취할 때나 이동시에 환경기술 정보를 문의·습득하는 계기가 됐다.

기념식에서는 박천상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의 개회사와 이치범 환경부장관의 축사를 문정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대독했으며 제종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격려사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를 오문호 청정환경국장이 대독했다.

정책설명회는 4개 분과로 나뉘져 정책입안자들이 환경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환경특강은 문정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추진과제’에 이어 신용배 한양대 명예교수가 계속했다.

제2부 행사로는 제1분과는 김낙주(서울산업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하·폐수종말처리시설과 1종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축될 수질 TMS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에 이어 업계의 제안과 운영사례 및 운영현황 등이 소개됐다.

제2분과는 최지용(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수질오염총량제의 추가적인 정책방향 및 오·폐수 고도처리와 비점오염원 관리를 중심으로 환경



부의 발표에 이어 업계 관계자들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제3분과는 전의찬(세종대)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기 관련 정책방향과 사업장대기총량규제·악취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에 이어 업계에서는 기술과 악취공정시 험방법 개정방향에 대한 발표 등과 토론이 있었다.

제4분과는 윤용수(단국대)교수의 좌장으로 하·폐수슬러지 재활용과 해양투기 관련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한 다음날인 29일에는 종합토론 및 우수공무원과 업체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분과별 발표에는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요구되는 신기술과 신공법에 대한 발표도 함께 열려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며 최첨단 기자재 전시회도 함께 했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참석시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같음하는 교육 이수증도 발급해 주었다.

과장 및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만찬회에 참석한 A기업 관계자는 “환경부담당자와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전하고 매년 개최되는 환경정책 설명회가 현장실무자들과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두환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각 분과별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대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행사 진행 상 시간이 촉박했음을 아쉬워했다. 또한 “내년 행사 때는 저녁시간에도 논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삽입했으면 한다”며 저녁 시간대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부 담당과장과의 종합토론’ 행사에는 환경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질문들을 쏟아냈고, 추가적인 논의와 대화의 시간이 요구됨을 시사했다.

####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지사상 = 표창장 : 홍권성(제주시청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지방환경7급), 감사패 : 유남중(주)일신종합 환경 대표이사, 박성순(신강하이텍(주) 연구소장)

▲환경관리공단이사장상 = 홍금용(비엘프로세스(주) 대표이사), 민선홍(한국엔바테크 대표), 이선균(동일화학 대표), 유문해(주)세진환경 대표이사, 김송호(홍진씨엔텍(주) 대표이사)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상 = 감사장 : 고맹중((주)이디컴 대표이사), 표창장 : 김태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지방환경7급) (C)

예정된 시각 초과 열띤 질문 이어져...

민·관 한자리 모여 정책현안 심도있는 의견 교환

마지막날 토론회는 환경정책을 운용하는 주체인 환경부와 전국 환경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이 현행 환경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며 계속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환경부 담당



▲ 환경부담당과장과의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 우수공무원과 업체 수상자 기념촬영